

EU 연구혁신 주간 동향 보고

<22.09.28, 한-EU연구협력센터>

- (우주) 호라이즌 유럽 우주 파트너십, 회원국 반대로 규모 대폭 축소¹⁾
 - * 우주 시스템의 글로벌 경쟁력을 위한 유럽 파트너십²⁾
 - 우주와 관련된 전략적, 정치적 이해관계로 회원국들이 파트너십에 반대하며,
 - 초기 예산 3년에 14~20억 유로에서 1억 5천만 유로로 축소되었으며,
 - 파트너십 범위도 상업 통신, 지구 관측 및 미래 우주 생태계 세 가지 영역으로 제한
 - 파트너십은 2023년 초에 체결될 예정이며, 프로젝트는 2025년 시작될 것으로 기대
- (수소) 집행위, 수소 기술 가치 사슬에 관한 두 번째 IPCEI*에 52억 유로 승인³⁾
 - (IPCEI Hy2Use) 13개 회원국이 공동으로 준비한 수소 인프라 및 산업적용 중심 프로젝트 35개에 29개의 유럽 기업 참여하게 되며, 기타 160개의 외부 파트너와 협력 예정
 - * 지난 7월 승인한 IPCEI Hy2Tech는 수소의 생산, 모빌리티 기술 중심 41개 프로젝트에 54억 유로
- (예산) 호라이즌 유럽 2023 예산 계획⁴⁾
 - 집행위, 호라이즌 유럽 2023년 예산 123억 유로 제안 → EU이사회, 집행위가 제안한 예산에서 6억 6,300만 유로 삭감 제안 → EU의회, 이사회에 삭감 철회 요구
 - 오는 10월 22일 회담에서 EU 이사회와 EU 의회는 차년도 예산을 두고 협상할 예정
- (LERU) 유럽연구대학연맹, EU R&I 예산의 확실성 및 명확성 촉구⁵⁾
 - “집행위는 프로그램 간에 자금 이동 및 새로운 우선순위에 추가 자금 사용을 중단해야”
 - “R&I 예산은 다른 큰 유럽 예산과 달리 용도가 지정되어 있지 않아 삭감에 더 취약...향후 7개년 EU 예산부터는 R&I 예산을 건드릴 수 없게 만들어야 할 것”
 - (집행위) 미사용 연구자금을 반도체칩법(Chips Act)에 공급 계획
 - (EU의회) 2020년, 2021년 미사용 연구자금 차년도 연구 예산에 유지 희망
- (보고서) [유럽혁신스코어보드 2022](#), ([맥킨지](#))유럽의 기업 및 기술 격차 해소

1) 우주 <https://sciencebusiness.net/news/industry-sees-scaled-down-horizon-europe-space-partnership-missed-opportunity>

2) 우주 파트너십 개요 / 파트너십 제안서 초안

3) IPCEI(Important Project of Common European Interest) https://ec.europa.eu/commission/presscorner/detail/en/ip_22_5676

4) 예산 <https://sciencebusiness.net/news/researchers-campaign-against-proposed-eu663m-cut-horizon-europe-2023>

5) LERU <https://www.leru.org/news/r-i-does-not-need-lip-service-but-financial-certainty-and-clarity>